

## Bony Trough를 이용하지 않는 회전근개 봉합술 (Rotator Cuff Repair without Bony Trough)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중앙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전재명, 최 진\*, 김기용

회전근개의 전층파열에 대해서는 수술적 봉합술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골-건봉합을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상완골 대결절에 bony trough를 만들고 이에 회전근개를 부착시키는 술식이 이용되어왔다. 근래에 회전근개 파열을 bony trough를 만들지 않고 봉합하는 술식이 고안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술식에 의한 결과가 어떠한지 대해서는 확실히 알려진 바가 없었다. 본 연구는 bony trough를 이용하지 않고 회전근개를 봉합한 예들을 추시하여 그 임상결과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있었다.

1995년 3월부터 1997년 2월까지 49례의 회전근개 전층파열 봉합술을 시행하였으며, 이 기간 중 골-건 봉합은 모두 bony trough없이 봉합하였다. 이중 6개월 이상의 추시기간을 가진 24예 중에서 뇌졸증이 발생한 1예를 제외하고 23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예를 수술전에 미국 건주관절학회의 건관절 기능평가법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마지막 추시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증상의 개선된 효과를 비교 검토하였다.

평균 추시기간은 14개월(최단 7개월 - 최장 22개월)이었으며, 소범위파열 3례, 중범위파열 14례, 대범위 1례, 광범위 파열 5례였다. 9례의 소범위 파열 및 중범위 파열의 경우에는 관절경적 견봉성형술 후에 소규모절개봉합술을 시행하였고, 나머지 14례에서는 절개견봉성형술 및 봉합술을 이용하였다. 임상결과는 9례(39%)에서 최우수, 12례(52%)에서 우수, 2례(9%)에서 보통이었으며, 불량인 결과를 보이는 예는 없어, 91%에서 우수이상의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동일한 평가법에 의한 점수의 증가는 평균 40점(최소 18점, 최대 78점)이었으며, 기능이 악화된 예는 없었으며, 합병증이나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하였던 환자는 없었다.

bony trough없이 회전근개를 봉합하는 술식은 bony trough를 이용하는 전통적인 방법에 비해, 보다 간편하고 용이하며, 골-건 봉합부위에 장력을 적게 주며, 건の本래의 해부학적인 주행방향을 되도록 보존하며, 골-건 봉합부위에 넓은 접촉면을 제공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술식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bony trough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관절경적견봉성형술 후 소규모절개봉합술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